

#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0. 가을호 (2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2000. 가을 호 (제2호)

CONTENTS

**CONTENTS**

**시론** / 젊은 세대가 애착을 가지는 동문회가 되자 · 3

**시·도지부장 명단** · 4

**동문회소식** / 중앙대학교 개교 82주년 제30회 모교의 날 · 6

**특별기고** / 의약분업과 “나”, 그리고 동문 · 6

**지부별소식** / 인천지부 · 10

영등포지부 · 11

**여자동문회소식** / 감국회 · 12

**만평** / 民·藥 出入禁止 · 13

**별난동문** /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 · 16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고 · 17

**회원동정** · 19

**약국도움** / 허바스메디메디아 코리아 · 20

**총동문회 및 모교소식** · 22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 24

**2000년 동문회 장학금 수여** · 25



인쇄 : 2000년 10월 25일 | 발행 : 2000년 10월 30일 | 발행인 : 유영후 | 편집인 : 황공용 |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 전화 : 565-1700 | 팩스 : 564-1701 | E-mail: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 전화 : (02)2263-1901(대) | 팩스 : (02) 2263-1905 | E-mail:YC1905@chollian.net

## 젊은 세대가 애착을 가지는 동문회가 되자



임 상 목  
(8회, 부회장)

‘의에 죽고 참에 살자’고 한 중앙인의 외침의 대열에 참여한지가 벌써 40여 년, 강산도 서너 번 변할 많은 세월 속에서 문득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나이 들어 머리에 허연 서리가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스라한 추억 속에 묻혀버린 학창시절의 그리움이 물밀 듯이 밀려 오면서 큰 꿈을 품고 찬란한 내일을 생각하며 캠퍼스 잔디밭에 벚들과 앓아 있던 그 시절의 공상으로 돌아간 듯한 상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산을 바라보며 학교 길을 걷던 야망과 패기에 찬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오늘의 우리 약계, 보다 더 정확히 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후배들의 입장이 더욱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상식(common sense)의 공감대가 몰상식한 힘의 논리 앞에 무참히 흐트러진 자금의 상황은 그나마 위태롭게 유지되어 오던 동문 의식에 또 다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솔직히 말해서 동문회에 대한 애착이 흐려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이 되어주어야 할 공조직의 무력함에 분노를 넘어 배신감까지 드는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영후 회장님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젊은 세대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문회의 구축이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원로 선배님들의 경륜과 애정이 동문회 존립의 기본적인 원동력이라면, 젊은 후배들의 패기와 열정은 바로 동문회 발전의 핵심

적인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 힘

이 되는 것은 결국 조직의 집약된 에너지이며 고통을 진심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동문들의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동문회지를 새롭게 창간한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전국 각지,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문회, 경륜과 패기의 조화로움 속에 오히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비판적인 시각까지를 포함한 동문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어렵사리 탄생한 동문회지의 활용에 주목할 것입니다.

모든 동문은 이 자랑스런 회지를 통해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정신을 살려 동문의 소식을 전파하여 동문 상호간에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다려지고 애착이 가는 그러한 회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이자 동시에 선배의 역할을 기꺼이 맡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지부장 명단

Profile Profile



전상훈(17회, 종로)



정훈교(5회, 중구)



서명규(7회, 동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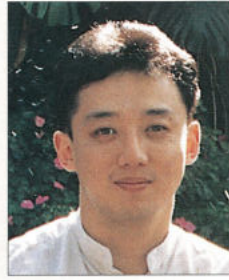
양희익(17회, 성동·광진)



권태섭(9회, 도봉)



김영덕(7회, 성북)



조성훈(29회, 서대문)



윤주섭(8회, 은평)



이관하(12회, 마포)



김종환(17회, 용산)



심재웅(12회, 영등포)



신성목(7회, 구로)



노덕재(12회, 강서·양천)



조기현(12회, 동작)



윤대봉(14회, 강남)



현병호(12회, 서초)



이규진(9회, 송파)



오춘택(12회, 관악)



유기욱(16회, 중랑)



김삼균(10회, 강동)



김성지(17회, 노원)



윤영노(16회, 수원)



김대희(17회, 인천)



황태선(9회, 평택)



정찬현(20회, 안양)



안병식(13회, 광명)



이범도(24회, 안산)



송수영(22회, 부천)



김상각(18회, 파주)



한병우(6회, 충북)



조병일(9회, 전북)



노석준(12회, 강원)



임유재(13회, 대전)



채성기(14회, 대구)



남기탁(12회, 부산)



문창하(4회, 제주)



우병하(6회, 미주)



서정목(10회, 성남)



전국시·도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자랑스런 일꾼들...  
여러분들의 노고와 모교의 밝은 앞날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Home-Coming Day

동문회소식



회장 유영후

## 인사말

“예전같이 화려하고 성대한 모임 대신 조촐하고 실속있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외부행사 대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학술 행사를 갖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남수 세무사의 세무처리 특강



## 중앙대학교 개교 82주년

본회 동문들의 큰 잔치인 중앙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제30회 모교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7일 서교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사회변화의 격류 속에서도 1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 선후배간의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 펼쳐져 오랜만에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다.

모교 의약식품대학원장 김창종 박사의 의약분업시대 약학발전 방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허남수 세무사의 의약분업시 세무처리에 대한 설명이 참석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기념품으로 제공된 정제분쇄기는 현 시점에 걸맞는 적절한 선물이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승당 임영신 박사 묘소를 참배하는 회장단

# 제30회 모교의 날



개교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교정에서 모교 후배들과 함께한 회장단



약학발전 방향에 관한 특강중인 김창중 교수

개교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모교 청룡상 앞에서





# 의약분업과 “나”, 그리고 동문

한 석 원 (8회, 약사공론 주간)

## 특별기고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어느새 훌쩍 3개월이 지났다. 지나고 보니 세월이야 빠른 것 같지만 약국과 약사직능에 주어진 고통, 그리고 적잖이 강요된 희생은 사실 의사보다 컸으면 컸지 못한 것은 없었다고 믿는다.

그런 고통과 희생을 선사한 분업은 약국과 약사직능에게 말단 하수처리장이나 종말처리장의 기능을 부여했다고 본다.

청진기와 볼펜이나 손에 들고 환자를 진단한 후 그 다음에는 으레 검사기기 앞에 세우는 도식적인 과정을 거쳐 약국에 보내는 것이 그들 의료기관 의사의 일이라면, 약국의 약사는 해독(?)하기 어려운 처방전을 뚫어지게 살핀 다음 팜매니저 2000이나 기타의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두들겨 열심히 약을 찾고, 그리고 나서 찾는 약이 없으면 허겁지겁 제약회사-도매상-이웃약국에 전화 걸기에 바빴다.

그것도 모자라 환자를 약국에 놔두고 택시를 집어타며 약을 구하느라 혼비백산 했고 없는 약을 들여놓느라 굶허본적 없는 자존심을 몽개면서까지 영업사원과 도매상직원에게 통사정을 해야 했으며, 그 통사정 뒤에 밀어

닥치는 현금결제 하느라 은행문턱 앞에서 머리마저 조아려야 했다.

이 모두는 남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상당부분 ‘나’ 한석원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담이다.

나이 60이 다되어 맞이한 분업시대의 ‘나’라는 약사는 전문직능인이 아니라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조제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다. 처방전 30건만 넘어도 혼자서 약국을 보는 경우라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로기’ 상태를 면치 못한다. 이같은 처참한 경험담은 ‘나’ 뿐만 아니라 개국동료 선후배 거의 모두가 공감하고 공통된 사안일 것이라 믿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대한약사회의 기관지인 약사공론의 주간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로서 사실상 약사회의 임원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기실 의약분업은 그런 ‘나’에게 조차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속으로는 “그저 이대로 가면 참 좋은 데...”라는 생각이 떠나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일은 저질러졌고 그야말로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의약분업은 약사회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님을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옆에서 지켜본 ‘나’는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 시민단체는 원래 우리에게 우호적인게 아니라 항상 원칙론적인 분업정책에 우호적이었다. 약사든 의사든 그 원칙론을 벗어난다고 여기면 그들에게는 모조리 적이었다. 전문직능인의 기득권을 지키려 의약분업을 애써 외면하는게 약사요 의사라는게 그들의 굳어져 버린 관념이었다. 단지 어차피 분업으로 간다면 원칙을 고수하는게 차라리 낫다 싶어 그리해온 약사회의 팔을 들어준 게 그들이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의약분업추진위원회(분추위)와 실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탄생된 오늘날 이 의약분업안에 굳게 도장을 찍게 한 주역은 지금와서 고백컨데 다름 아닌 의사회의 김재정 현회장이었다. 당시 망설였던 유성희 회장에게 사인을 권유했던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현하의 분업안을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인물로 바뀌어 버렸다.

의약분업 100일을 맞아 '나'는 약사회의 앞날이 새삼 걱정스러워진다. 의약분업의 혼선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드세어지거나 정책갈등과 표류의 여파가 심해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다. 어차피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될 따름이다.

'나'라는 사람이 지내온 30년 약사회무를 반추하며 우려하는 바로는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한 저항이 가져올 전대미문의 부작용인 것이다. 일개 민간단체의 파업이 가져온 정부정책의 항명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스타일을 구긴 정부당국이 이제 그런 민간단체의 힘을 그대로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의사회 덕분에 약사회는 의사회와 함께 곧 무력해진 임의단체로 전락할 지 모른다.

행정규제 완화라는 명분아래 약사회와 의사회의 법적 존재가치를 정부가 먼저 부인하고 이들 조직에 위임하였던 많은 행정권한을 도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회원가입 또한 임의로 규정한다면 약사회와 의사회의 조직화된 시스템은 금새 붕괴되어 버릴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약분업보다 더 무서운 정책, 가령 약국의 법인화나 무차별 자본의 참여속에 대기업과 소수 금권의 지배하에 약국시장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때 약사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모든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약사회가 대한약사회나 한국약사회 아니면 그 이상의 몇몇 단체로 쪼개지고 정부와의 교섭채널이 실종된 처지에 물리면 약국가와 개업 약사직능은 순식간에 급전직하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부러움을 많이 산다는 한국의 약국가가 언제 어느새 세계 어디에 가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형편없는 약사직능의 지옥으로 변할지 모른다. 앞서 분업을 맞아 술한 고통과 희생의 한 부분을 스스로 감수하였던 '나'는 비록 실낱같이 가느다랗지만 도저히 저버릴 수 없는 희망과 굳은 신념을 각각 한가지씩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우리 약국가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사실과,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을 모방한 의약분업의 기운은 아

예 싹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나'는 전여욱이란 주일특과원출신의 전직기자가 쓴 "일본은 없다"라는 책의 제목을 인용하여 "일본 약국은 없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고자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아무 탈없이 임의분업으로 잘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의 의약계를 거들먹거리다고 한다.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나'는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를 잘만 수정하고 또 의사단체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의료일원화를 배경에 간 정책으로만 전환시킬 수 있다면 약국가와 약사직능은 과거 근세 100년 약학사에 없던 번영과 직능의 참된 영예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해본다. 분업초기의 오늘날과 같은 어지러움이 앞으로 3-4개월 더 지속되고 그로부터 발빠른 정착상황에 접어들면

## 의료수가와 조제수가를 한데 모여 논의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모순을 서로 머리 맞대어 다루는 가운데 슬기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약사와 의사가 따로됨이 없을 것 같다.

의료수가와 조제수가를 한데 모여 논의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모순을 서로 머리 맞대어 다루는 가운데 슬기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우리 5천여 중앙약인의 단합된 힘으로 현실화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다소 허황된 꿈이라 꾸짖어도 좋다. 그 꾸짖음을 한켠에서 "그래도 우리 동문이 앞장서 팔을 걷어 붙인다면 5만 약사가 못할게 뭐가 있겠느냐"는 그런 부추김 한마디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용기가 마냥 샘솟을 것만 같다. 그 용기가 말로 바로 우리 동문만이 지닐 수 있는 이 시대 중앙약인의 정기라 여겨진다.

한국 약업의 역사를 역사의 한 가운데서 기술한 중앙약인 그리고 굽이치는 한강의 기적을 옆구리에 끼고 포효하는 청룡의 용틀임 같은 기상으로 살아온 우리 중앙약인이 꺼져가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줄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전 회원의 가슴에 와닿는 동문회



김 대 희  
(17회, 인천지부장)

서해안 교역시대의 중추적 관문인 인천동문회를 소개할 때에 특징적인 것은 약사회 창립초기부터 현재의 시약 집행부까지 명실상부하게 인천 약업계의 중심체로써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핵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근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동문회원수와 선배님들의 왕성한 활동,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단결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유영후 총동문회 회장님도 인천에서 개업을 하며 인천동문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이양현 회장(7회)이 인천 중대 총동문회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며 그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약대출신 후배들의 사회활동에 음양으로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약의 840여 전체 개국 약사에서 동문회원이 240명을 접하고 있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 학창시절을 회

고할 때에, 인천 지역과 불과



한시간 소요되는 흑석동 모교와의 통학으로 4년간을 같은 전철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후배간의 정감의 교류가 이루어 낸 결과이리라.

하지만 점차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적 조류속에 자칫 거대한 조직체가 흔히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최고 명문으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현재의 김대희 회장(17회)이 선출되면서 자문위원(정재항, 이양현, 김용규)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 회원의 가슴에 와 닿는 동문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조직을 일대 개편하였다.

시지부(중앙) 조직을 최소한 슬림화 하고, 전체를 6개 광역구로 분할하여 각 구별로 부회장과 간사 위주로 월례정기모임과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애경사 중 경사를 주로 맡고 있다.

시지부에서는 주로 회원들의 애사를 담당 하면서, 전체 동문화합의 모임인 총회와 야유회(바다낚시 등)를 개최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고급중의연구 코-스를 개설(월간 중의잡지·중서의 결합잡지 등 이용)하여 뜻있는 동문들의 한방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 중이다.

최근, 하반기(8月)에 약사고지를 치른 인천출신 6명의 예비회원을 초청하여 회장단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 약사회 인물의 보고 동문회



**심재웅**  
(12회, 영등포지부장)

70년대 초까지는 동작·관악·구로·금천·강서구는 영등포구의 일부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1962년 2월 15일에 현 국회의원인 김명섭 동문(5회)의 자택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매월 15일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초대 지부회장으로 지선훈 동문(2

회)이 선출되어 출범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 타지부에 비해 자랑거리도 많은 지부 회원들의 긍지 또한 대단합니다. 1966년부터 일찍이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30여년이 넘게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후배 재학생 2명을 1·2학기마다 각각 2명씩 장학금을 수여하여 훌륭한 후배 동문을 양성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본 영등포 지부는 동문회 발전은 물론 약업계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명섭 현 의원입니다. 영등포 분회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 국회3선의원으로 당선시킨 것도 본 지부 전 회원의 단합된 힘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결과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 동문회 회장을 맡으신 유영후 동문회 회장님도 영등포 지부 출신이며 현 영등포구 문화원장이신 정진원 동문(4회), 서울약사신험를 국내 어느 은행에 비해 손색없이 발전시킨 조택상(12회) 현 이사장도 본 지부 회원입니다.

영등포 약사회를 주도해온 많은 동문이 있습니다. 2대 회장을 지낸 윤영수(2회)동문, 송정용(3회)동문, 노봉하(4

회), 정진원(4회), 김명섭, 허정범(11회)동문, 영등포구 의회 의장 및 서울 구의원 전국연합회 회장을 지낸 김형수 약사회 회장과 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권혁구 동문(9회) 등 많은 동문이 영등포 약사회를 발전시킨 인물들입니다.

특히 권혁구 동문은 7대 지부회장을 맡으면서 매년 2월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서울에서 개최해오던 척사대회를 해마다 전국 관광명소를 1박 2일동안 회원 가족을 동반하여 전지 척사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에는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전지 척사대회를 가짐으로써 동문 가족들끼리도 결속이 되어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에 촉매제가 되어 오늘날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형인 이동윤 동문(1회)와 전지 척사대회 때마다 본 지부 발전에 공이 큰 동문을 익명으로 금일봉을 지급하여 격려해온 지선훈 동문과 동문회 일이라면 온갖 열정을 가지고 돌봐 주시는 안재민(3회) 영등포약품회장님과 임종환(3회)동문, 이경석(4회)동문의 뒷받침이 본 지부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본 지부의 큰일이 생기면 앞장서 일해온 유정사(10회) 동문, 임종일(7회)동문 등 많은 회원들이 있었기에 본 지부가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 지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보수적인 관계로 신진 후배동문이 약국개설하기가 어려워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신진동문이 적어 걱정이기도 합니다.



# 감국회

밀레니엄의 새로운 시기에 여동문회도 강국희 회장(12회)의 새 깃발을 달고 출범의 닳을 올렸다.

제1대 장례 회장 이후, 박명자, 김석자, 우정희, 신정숙, 김연희 회장에 이어 제7대 회장에 취임한 강국희 회장은, 일찍이 종로구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회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옴과 동시에 김석자 회장 재임시 총무를 맡아 동문회 사랑에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인물이다. 12회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동문회 회장에 취임한 강국희 회장은, 주변 인물들과의 만나지 않고 원만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을 만들지 않는 성품으로도, 총동문회에서 칭송이 자자해 왔다.

여동문회를 발전시키고 융화한다는 기치아래 지난 5월 취임 이후 발걸음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의약분업으로 바쁜 동문들의 협조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7대 총무를 맡아 그동안 여약사회를 비롯, 구로구약사회 회무 등을 맡아 중앙대 여동문의 활약상을 널리 입증해온 경력으로 동문회 발전의 한 축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욕을 밝히는 이경옥 총무(19회)의 의지도 기대해 불만하다.

깊어가는 가을날 국화향기의 그윽함속에 간단하게나마 우리 여동문회의 주축을 이루는 '감국회' 회원을 회기별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여동문회의 산증인이자 만언니 역할을 하고, 여동문회의 기초를 다진 제1대 장례회장(1회)은 지역에서도 많은 봉사를 펼치는 등 모범적인 여약사로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며, 2대 박명자 회장은 부군인 고두흔(2회) 약학박사와 함께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앞에서



강 희 윤  
(여동문회 부회장, 22회)

개국하여 중앙인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동문회에 장학금도 쾌적하는 자랑스런 여동문이기도 하다. 여결이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소녀같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김석자 회장(3회)은 여동문회의 도약을 이룬 인물로서, 총동문회 부회장, 가정복지정책연구소의 창립이사, 평통지문위원 등의 활약을 해왔다.

우정희 제4대 회장은 여동문회의 내실을 기했으며 항상 품위있는 모습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제5대 신정숙 회장은 한약학에 조예가 깊은 밀밭침으로 감국회의 한

약공부 모임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소리지 않게 여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6회 김경희 여동문은 수적으로 여대의 장악력이 큰 약사회안에서 '여약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대 여동문으로서 보기 드물게 약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꼼꼼하게 후배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도맡음으로써 많은 여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7회 박숙자 동문은 단아한 외모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동문회 활동을 해왔고, 6대 김연희 회장(8회)은 타 여동문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비롯하여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20회 이상의 여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여동문회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 넣어왔다.

8회의 문옥자 동문은 대한약사회 한약강사를 비롯한 다수의 강의를 하는 등 약계의 쟁쟁한 한약의 실력자로서 '감국회' 한약강의도 해왔고, 8회 여동문들의 단합을 주도해 김연희 전회장의 회무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11회 김미자 동문의 서예는 이미 아마추어의 경지를 벗어난 프로로서, 약계의 주요 '필치'를 도맡아 해내는 훌륭한 동문으로 여동문회 발전에 묵묵히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머나먼 캐나다에서 여동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박월준(11회) 동문은 이따금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는 정성을 보이고 있다.

13회 엄계숙 동문은 6대 총무를 지내면서 특유의 활달한 성품으로 여동문회의 화합을 이끌고, 김연희 회장의 회무에 적극적으로 보좌해왔다. 나이를 들어도 미모를 잃지 않는 13회 오영지 동문의 여동문회 사랑은 동문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고, 필자인 강희운(22회)이 있고, 28회 양덕숙, 김희식, 김영희 등이 있다.



약학박사인 양덕숙 동문은 본교 강의를 하고 있고, 한약강사로써 여동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학창시절의 재원인 김희식 여동문은 미래의 여동문회를 젊어지고 갈 차세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김영희 동문은 약사회의 많은 행사에서 호소력있는 음성과 날카로운 상황판단의 인기있는 발언으로 기대를 모으는 유망한 여동문이다.

이외에도 많은 여동문들이 여동문회 발전에 힘을 쏟고 있으므로 아직은 젊은세대의 여동문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여동문회의 모습을 대할 수 있으리라 짐작이 간다.

강옥희 회장의 '중앙대 여동문회'의 순항과 발전을 기원하며, 여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여동문회 사랑을 더욱 더 기대해 보며 이 글을 마친다.



김기명  
(18회, 극동약국)

## 조용하지만 중앙약대의 역사를 이어간다



**고 두 흔**  
(2회, 동기회장)

모교의 역사를 조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회 동기회다.

2회는 1954년 6. 25전쟁이 끝날 무렵 입학해서 전쟁의 폐허속에서 약학을 일으키는데 젊음을 바친 동기회다. 그러나 1년 먼저 입학한 1회가 중앙약대의 효시로서 각광을 받아온데 비하여 2회는 “스포트라이트”의 그늘속에서 동문회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래서 그런지 동문회의 전면에 나선 2

회 동기는 김흥조(5대 동문회장·작고) 한 사람 뿐이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전국각지에서 “中央”을 빛내왔다.

약사회에서 활동한 회원으로는 대한약사회 감사를 역임한 성복구 이문규 동문, 일찍이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약사공론 주간을 지낸 구로구의 최관용 동문이 있고, 평택에서 약사회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역임한 서화택 동문이 있다.

2회 동기회는 또한 학계에도 굳건한 뿌

리를 내려서 홍순각 동문이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다 99년 8월 정년퇴임한 바 있고, 도상학 동문이 동덕약대 학장과 한국생약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성순 동문이 충북대 약대 제약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 지부 및 본 동문회에서 활약한 2회 동문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중에서도 약대 총동문회의 감사를 역임한 바 있는 영등포구의 지선훈, 도봉구의 이택성 동문 등의 활약이 활발했으며 정덕화 동문의 역할도 두드러진다.

2회 동기회는 현재 모교 정문앞에서 금강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고두흔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고두흔 회장은 여자동문회장을 역임한 박명자(5회) 동문과 부부약사로서 모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도 2회 동기회는 중앙약대 동문회의 역사를 조용히 만들어가는 동기회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 내가 원하는 곳이 최고의 일터라는 자부심으로



**박 정 배**  
(6회, 동기회장)

동기회에 관한 글을 쓰자니 지나간 옛날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가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중앙약대 6회 동기는 1958년 입학한 동창들로 일제말과 8. 15광복, 6. 25전란을 거쳐 초, 중등학교를 마치고 1960년 4. 19학생혁명의 주역으로 혁명 후 세워진 국가재

건 최고회의에 의해 1962년 졸업에는 전무후무할 학사 국가고사라는 졸업시험을 거쳐 대학수료증과 학사학 위증서를 수여받고 약사국가시험에 응시 약사가 되었으니, 인간 KS라는 농담아닌 고소가 나오는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련기를 거쳐 이 사회에 배출된 우리 6회는 졸업생이 무려 175명이나 배출되었으나 현

재는 국내 거주하는 116명과 외국에 34명이 있으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25명이나 되니 인생무상, 이들 모두 이 사회의 중견 인물로 각자 자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이야기를

하자면 학계에는 모교 유기의약품 화학교실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임철부 전임학장이 정년을 앞두고 있고,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산업보건 연구를 하던 오세민 박사, 약무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던 배동수, 서울시 약사회의 사무국에 수년간 봉직하던 안인혁, 등은 정년이 되어 벌써 현직을 떠났고, 지난해까지 여자동문회를 이끌던 신정숙 여자동문회

전임회장,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대부로 칭송되며 도협 회장을 역임하고 직전 중앙약대 동창회를 이끌던 임완호, 그 옛날 성병약조제로 유명하던 임성기는 흥병석과 한미약품을 설립해 국내 유수의 기업이 되었는데 가 하면 약사가 모자라 의학수업을 받아 미렘플의대에서 미생물학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학자가 된 서병세며 80년 초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다 미국에 이민가 외도아닌 의도를 해 반도체 부문에 권위자가 되어 작년 까지 삼성전자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안정환 등 많은 이들이며, 오늘도 약사라는 직분으로 개국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고 보면 모두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제일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기동창의 모임은 우애와 친목으로 맺어지는 것으로 6회에는 몇몇의 개별 소모임이 있는데, 3회 선배님 모임회와 같은 상조회 모임으로 6중회와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모임인 6구회 또는 십수명씩 모이는 약중회,

5. 8회 등의 개별 모임 등이 있으나 서로 유기적 연계가 잘 되어 동창회의 오늘을 맞으며 2년 후에는 입학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끔 농담조로 내 본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람이 기업 일 보다는 봉사 활동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 단체 이름을 열거해보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총재,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 기독교방송 후원회장, 서울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고운빛 여성합창단장, 영등포문화원장, 한국 보이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장, 학교법인 영명학원 이사, 장학재단법인 남부소년선도 재단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서울 YMCA 이사, 남부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범죄예방협의회 회장...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단체들이다. 이 모든 자리가 요구하는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바쁘게 뛰어다녀야 한다. 사회봉사단체인 로타리 클럽에는 70년에 가입해 얼마전까지 제3640지구 총재로 일하다 임기를 마쳤다.

내가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영등포구 약사회장을 맡으면서다. 당시 영등포구는 강남, 김포, 시흥을 아우르는 무척 큰 행정구역



정진원  
(4회, 원풍실업대표)

이었다. 약사회장을 하다보니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지능대표로 차출돼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에는 초대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4년 연임했다.

이 두가지 직책을 맡았던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내게 이런 저런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총재를 맡은 것은 김수환 추기경과 박순용 검찰총장의 간청 때문이었다. 이 재단 이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바빠서 실무를 모두 챙기기 어려우니 총재 자리를 신설하고 나보고 맡아달라고 두 분이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재단은 교내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여의도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때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라는 연합체가 생기면서 내게 총연합회장을 맡겼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 대표가 참여해 각종 학교 행정에 관해 자문을 하는 기구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 전국의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기독교방송 후원회장을 맡게된





것은 선친의 인연 때문이다. 선친께서는 기독교방송이 뉴스도 못내보내고 어려움을 겪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10년 가까이 재단이사장으로 일하셨다. 목동 기독교방송 후원회장을 맡았으니 2대에 걸쳐 방송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셈이다. 이런 모든 직책은 월급을 주는 자리도 아니고 감투 욕심에서 맡은 것도 아니다. 이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적임자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간곡한 요청을 하는

바람에 맡겨된 직책들이다.

물론 어느 단체로부터 월급이나 관공비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 내 돈을 써야하는 자리다. 일단 맡은 일은 성심성의껏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매일 매일 바쁠 수 밖에 없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부와 명예와 행복을 누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그늘진 곳에서 고통을 겪는 약자들이 너무 많다.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

람, 장애인,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실직자,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어린 학생... 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통해 나는 행복을 느낀다.

봉사활동은 바로 내가 사는 보람이다.

또 이런 남편을 이해해준 아내가 없었더라면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잊지않고

미국에 이민온지가 어언 3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 얼굴에 주름만 늘었지만, 지나간 나의 학창시절을 자주 되돌아 보며 내 나이, 나의 주름진 늙은 모습을 잊곤한다. 어떤 때는 이 학창시절의 회상은 내가 미국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잠시 망각케 하곤한다.

정확히 1974년 8월 17일이었다. 내가 출구가 하나밖에 없던 조그만 김포공항을 등뒤로 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날이다. 하와이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고, 간신히 비행기를 갈아 타고 펜실바니아, 브리스틀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하와이에서 펜실바니아 행 출구를 못 찾아 헤메었던 기억은 지금도 진땀이 날 정도였다. 왜 그렇게 출구가 많던지...

미국 약사의 청운의 꿈을 안고



이 준 종  
(7회, 재미태권도 사범)

학창시절 친구의 집에 같이 기거하면서 첫 번째로 잡았던 직장이 Lodato Pharmacy라고 Italian이 운영하던 약국이었다. 미국 약사증을 따기 위해 매주 일요일은 뉴욕으로 올라가 공부하고 6일은 이 약국에서 기거하면서 일과 실전을 쌓아나갔다.

말이 실전이지 실제는 약국 청소, 가격표 찍기, 또 알약을 세어 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의 내 나이가 35세이었으니, 앞으로의 청운의 꿈이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영어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피곤한 몸이지만 밤에는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영어 공부를 해야 했다. 지금도 그때 제일 많이 친구 노릇했던 영한 사전은 나의 보물중 하나이다.

이렇게 6개월을 일을 해보니 내가 꿈꾸던 약사예의 권위나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은 사라져야했다. 미국의 약사가 한 잡화상 주인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실에 그 때의 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차라리 어렸을 적부터 해왔던 태권도 도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75년 봄에 구입한 털털



**지금에서 뒤돌아보니,  
나 자신도 꽤 많은 명함을 지닌 생활을 했구나 생각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타향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금지령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산다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탁소 주인이면 어떨고, 골프장 주인이면 어떨까?  
우리 조국을 잊지 않고 2세들에게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거리는 중고차를 몰고 도장 자리를 물색중 한 조그만 Shopping Mall 에 도장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종류 이상의 수준이어서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 가르치는데 훨씬 수월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도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도장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그 중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한국에서도 무예를 익혔다는 미국인 한 사람이, 무척 거구였다. 아마 120-130kg은 족히 되었으리라... 내 도장에서 나에게 도전장을 낸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앞차기, 옆차기가 자기 특기였다고 기억하는데, 그 친구 발차기를 피할때 마

다 비행기 음속 돌파할 때 나는 소리가 나 속으로 겁도 났었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즉 미국땅에서는 도장을 할 수 없다는,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싸움에 임해 그 친구의 코뼈를 부러트릴 정도의 가격을 성공시켜 제자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 뒤 이 친구도 발 벗고 나섰고, 소문도 좋게 나 결국 도장을 5개나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법의 무지와 영어의 부족으로 돈을 못벌고 한 개의 도장으로 줄이고, 돈을 벌기위한 장사가 무엇이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중 세탁업이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판단하여 세탁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 일요일도 일을 하였다. 운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세탁소는 점점 번창하여 2개를 더 차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15년이라는 세월을 세탁업을 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여유도 갖게 되었다. 그 사이 38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두게 되었고 가정도 안정이 되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교육관으로 지식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한다. 지금 두 아들은 아이비 리그의 대학에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부모의 고생을 자기들이 보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니 이것이 보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틈틈히 쳤던 골프도 남들이 이야기하기로는 single 이라고 할 정도이고 나름대로의 노년의 생활도 있고 해, 그동안의 모았던 돈으로 타석 60석에 36홀의 miniature golf course를 가진 꽤 큰 규모의 driving range를 시작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

지금에서 뒤돌아보니, 나 자신도 꽤 많은 명함을 지닌 생활을 했구나 생각한다. 약사에서 태권도 사범, 그리고 세탁소 주인 또 골프 연습장 사장까지 하고 있으니 이 과란만장하지 않은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타향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금지령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산다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탁소 주인이면 어떨고, 골프장 주인이면 어떨까?

우리 조국을 잊지 않고 2세들에게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면!!

## 회원동정

동문 동정란은  
6천여 동문에게  
동문들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장입니다.  
직장이동이나 직위의  
변동은 물론 주위  
동문들의 경조사를  
서신이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이사선임

- 전승규(7회), 김미자(11회), 노덕재(12회), 이창욱(19회), 이흥기(19회), 조중래(24회)

### 인사

- 안병식(14회, 이사) 7월 1일 광명시 시민회관에서 국제로타리 3690지구 총재로 취임

### 결혼

- 정덕화(2회, 이사) 자녀, 7월 1일 청담웨딩포라지에서 결혼
- 신정숙(6회, 이사) 자녀, 7월 1일 공항터미널 웨딩홀에서 결혼
- 임중환(3회, 이사) 자녀, 7월 9일 군인회관에서 결혼
- 신화우(5회, 이사) 자녀, 9월 2일 남서울웨딩홀에서 결혼
- 김옥동(1회, 이사) 자녀, 9월 29일 결혼
- 김상호(1회) 자녀 9월 29일 결혼
- 선우연(3회, 이사) 자녀, 10월 7일 원일교회에서 결혼
- 천홍기(4회, 이사) 자녀, 10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결혼

### 개업

- 김현용(4회, 이사) 강남구 대치동 1025 진달래상가 1층 약손메디칼약국 개업 Tel:529-3010
- 최길영(6회, 이사)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47-4(대우자관 계산동사육내)에서 연세약국개업
- 안병환(6회, 이사)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596-1에서 중앙프라자약국 개업
- 황문상(11회, 이사)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30-16에서 교문리약국 개업
- 이호섭(12회, 부회장) 구로구 구로본동 505-10에서 505약국 확장개업
- 김승태(15회, 부회장) 성북구 장위3동 272-36에서 승일약국 확장개업
- 임영식(15회, 이사) 강동구 길1동 446에서 강동약국 개업
- 김대회(17회, 이사) 인천시 남구 주안3동 810-2에서 신성당약국 확장개업
- 박계환(18회, 부회장) 서초구 방배4동 852-6에서 녹십자약국개업
- 김현태(20회, 부회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 그린팜약국개업

### 회갑

- 임철부 교수(6회) 9월 23일 팔레스호텔에서 회갑연

### 부음

- 정명진(18회, 부회장) 7월 21일 모친상
- 최종목(3회, 고문) 8월 25일 장인상

## 병원약사위원회

중앙대출신 종합병원 약국장들의 친목모임인  
흑중회가 2000. 10. 11 병원약사위원회  
발기모임을 가지면서 동문회 정식 지부로  
탄생하게 되었다.





# 맞춤형 의약정보 종합 서비스 회사

## - 하바스메디메디아 코리아

박 희 용 (23회, 하바스메디메디아 코리아 편집국장)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숨돌릴 틈 없이 의약에 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실시간에 전달되는 시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는 일이다.

변화의 흐름에 보수성이 강한 약국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거대한 문화적 충격인 의약분업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선 지금, 최근의 우리의 화두는 줄곧 변화라는 한마디로 요약되어 왔다.

거창하게 설명할 것 없이 지금까지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현재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약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만으로 큰 불편 없이 약국을 꾸려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지도 못한 약, 듣지도 못한 병에 대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약국의 존폐라는 엄청난 결과와 직결되는 상황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따로 신경 쓸 필요를 거의 못 느꼈을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막상 뭔가 시작하려고 하니 그 밑도 끝도 없는 방대한 정보의 무게에 어디서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할 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안 그래도 용량이 포화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복잡한 머리에 모든 것을 쑤셔 넣으려 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막상 공부하려고 보니 '쓸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도 핑계다.

세월이 좋아져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책자며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내 여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수고만이 남아 있다. 한가지 더, 내 생각만으로 알아서 작동해 주는 컴퓨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노력도 동반되지 않으면 이도 저도 무용지물.

절대 다수의 개국가와 아주 약간의 제약회사, 병원 약국, 연구소 근무가 거의 전부인 약사들의 세계에서 약국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가공하고 정리해서 맞춤 서비스(customized service)를 제공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신나고 흥미있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개국가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약품설명서를 모으고, 의약전문잡지며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약사들의 일터, 메디메디아에 근무하고 있다.

하바스메디메디아 코리아는 의약전문인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약정보 종합서비스 회사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국내 유일의 최신의약품 인덱스 KIMS, 약국경영 및 임상학술전문지 파마시투데이를 비롯 DI DB의 선두주자 KIMS On CD와 이에 연동되는 약국관리용 전자차트에서부터 의료기관 지리정보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을 겸비한 종합정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의약정보 포털사이트 김스온라인(<http://www.kimsonline.co.kr>)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문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 매체 및 관련 아 이템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지도 못한 약, 듣지도 못한 병에 대해 복약지도를 해주어야 하는 시대,  
 정보화, 전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사항

➤ KIMS Reference System

- KIMS : 국내 유일의 다빈도/최신 의약품 인덱스 (연 3회).
- KIMS PharmIndex : 전 제품 성분별 의약품 가이드 (연 1회).
- KIMS Annual : 주요 처방의약품의 상세한 정보, 실물 컬러사진 수록(연 1회).
- KIMS On CD : 신속한 검색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완성판 / KIMS & KIMS Annual 정보 수록, 약 7000가지 이상의 약물상호작용 검색, 의약품 실물 컬러사진(연 3회).
- KIMS Map : 의료기관 지도, 상권분석 및 의료전달 시스템.
- KIMS My Chart : KIMS와 100% 연동되는 지능형 약국 전자차트 / 전자차트 EDI 시스템, 판매·재고관리, 특수약품관리, 환자관리, 경영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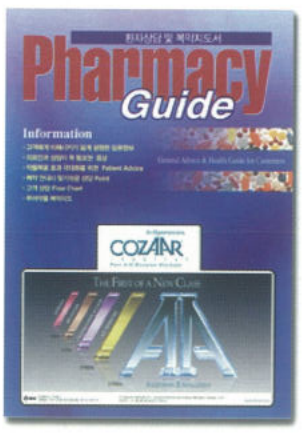
➤ KIMS online(www.kimsonline.co.kr)

- 매일 업데이트 되는 최신 의약계 뉴스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약품 정보 검색(온라인 KIMS 의약품 정보 eKIMS, 약국 경영 종합정보 서비스 Pharmacy Today Net, 우리동네 병의원/약국 지리정보 KIMS Map, 일반인을 위한 의료정보 사이트 Health Today 등)
- 무료 이메일 / 무료 홈페이지 제작

➤ Journals

- Pharmacy Today : 새로운 약국경영을 위한 섹션신문(월간).
- JAMA Korea : 최신의학정보지(격월간).
- Medical Progress : 임상의학전문지(격월간).

기타 각종 맞춤정보서비스(customized service)  
 / PDR 판매대행 등  
 (E-mail : hypark@kimsonline.co.kr)





## 중앙대 개교 82주년 기념식

▲ 기념식장에 참석한 내외 귀빈과 기념사를 낭독하는 이종훈 총장의 모습

개교 82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11시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종훈 총장, 김희수 이사장, 배용수 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년근속상, 교원공로상, 교육상, 학술상 및 직원공로상과 제12회 중앙언론문화상의 표창식이 있었다.

- 영년근속자 : 178명
- 교원공로상 : 2명
- 교육상 : 3명
- 학술상 : 4명
- 직원공로상 : 10명

### 중동문화 및 모교소식

## 12회 중앙언론문화상 시상



▲ 사진 좌로부터 김종수(도서출판 한울대표)·박우덕((주)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이종훈(중앙대 총장)·김희수(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신준우(교통방송본부 본부장)·장준봉(경향신문사 사장)·김대모(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지난 10월 11일(수) 오전 11시 본교 아트센터에서 개교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우리나라 언론문화계를 위해 헌신의 정열을 바쳐 사회정의의 구현에 공헌한 우리나라의 신문·방송·광고·출판 등 4개분야의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12회 중앙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중앙언론문화상의 수상자로는 ▲ 신문부문 = 경향신문사 ▲ 방송부문 = 신준우(교통방송본부 본부장) ▲ 광고부문 = 박우덕((주)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 출판부문 = 김종수(도서출판 한울 대표)씨 등이다.

## 2000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2000년 2학기 장학금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8월 29일 동창회관 5층 중앙인 사랑방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에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모두 10명(1캠퍼스 5명, 2캠퍼스 5명)으로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150만원씩을 받았다. 장학생 선발방법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서 모교 총장 추천에 의해 선정되었다.

## 북미주 북중양대학교 동창회



▲ 제4회 북미주 연합회 정기총회 개최식 모습

북미주 중양대학교 동창회 연합회(회장 손호선 : 신방 19)가 주최하고 뉴욕지부 중양대 동창회(회장 유지성 : 신방 25)가 주관한 제4차 북미주 연합 정기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인근 메리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배용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모교 이종훈(경제 10) 총장, 서울 기독교동문회 회장 최승웅(경제

17), 서청원(정의 18) 국회의원, 모교 곽동성(경영 22) 교학처장, 곽영철(체육 17) 목사와 북미주 동문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용수 총동창회장은 “고국과 북미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북미주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가 모교 발전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LA지부 동문회 성황리에 개최



▲ LA지부 동문회에서 축사하는 배용수 총동창회장

지난 8월 9일 미국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동문회(회장 박노익, 약 14)가 로스앤젤레스 시내 올림픽가 부튼스 코너에 위치한 강남회관에서 동문 약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배용수 총동창회장은 LA지부 김대순(화학 9) 이사장과 박보균(화학 15) 전회장에 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LA지부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당부하였다.

LA지부 동문들은 앞으로 LA지부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 및 차기 북미주연합회 정기총회 유치방안을 심도깊게 논의 하였으며, 차기 모임은 12월 16일 갖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미주 한국방송 보도 제작국장인 이승상(경제 16) 부회장을 비롯하여 신영선(법 16) LA대한항공 지점장, 이복순(약 14), 정성남(행정 16), 이근목(연영 32), 옥승민(경영 34), 권해경(사진 34) 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지난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2000. 10. 23. 현재)

2000년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웅비의 날개를 펼칩니다. 약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21세기에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동문여러분들의 정성이 뭉치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큰일을 이루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단 회비(24만원)

합계 : 2,880,000원

유영후(7회), 정재일(7회), 이기안(7회),  
 박숙자(7회), 임상목(8회), 조의환(8회),  
 김연희(8회), 오희영(9회), 이규진(9회),  
 권혁구(9회), 박호일(10회), 유정사(10회)

## 이사회비(12만원)

합계 : 8,040,000원

1회 : 김옥동, 김순일, 김기홍, 손동헌  
 2회 : 고두훈, 도상학, 서화택, 정덕화  
 3회 : 배영식, 김기성, 김석자, 노인배,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최종목  
 4회 : 김기호, 이연수, 이창우  
 5회 : 김상오, 김영배, 김중무, 김채윤,  
 정훈교  
 6회 : 박정배, 김동열, 신정숙, 안병한,  
 유상열, 임성기, 최길영, 한병우  
 7회 : 강승안, 서명규, 서승중, 이양현,  
 유윤자  
 8회 : 김성숙, 김신자, 김홍자, 문옥자,  
 배영애, 박찬수, 이백천, 한석원,  
 허근희  
 9회 : 이근배, 조정기  
 10회 : 김광일, 서정목, 이대운  
 11회 : 김창중

12회 : 노덕재, 오춘택, 이관하, 조택상  
 13회 : 박동규, 황근성  
 16회 : 권영복, 최장원  
 17회 : 양희익, 양계순, 신상직,  
 21회 : 김수배  
 22회 : 고부환, 손의동  
 24회 : 조종래  
 28회 : 양덕숙

## 후원금(20만원)

지부동문회(지부장) : 20만원

합계 : 4,600,000

종로(전상훈), 광진·성동(양희익), 성  
 북(김영덕), 마포(이관하), 영등포(심재  
 웅), 강서·양천(노덕재), 동작(조기현),  
 강남(윤대봉), 서초(현병호), 송파(이규  
 진), 관악(오춘택), 강동(김삼균), 수원  
 (윤영노), 인천(김대회), 안양(정찬현),  
 안산(이범도), 부천(송수영), 파주(김상  
 각), 충북(한병우), 강원(노석준), 대구  
 (우준하), 부산(남기탁), 성남(서정목)  
 ※ 한석원(8회)이사 특별회비 : 10만원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기별동기회(동기회장) : 20만원

합계 : 3,200,000

1회(김옥동), 2회(고두훈), 3회(배영  
 식), 4회(천홍기), 5회(이송학), 6회  
 (박정배), 7회(정재일), 8회(임상목),  
 9회(김의섭), 10회(박호일), 12회(최  
 병호), 13회(김종성), 14회(이규식),  
 20회(김현태), 23회(김영식), 25회(이  
 재희)

제약회사(대표)

합계 : 3,800,000

일동제약(윤원영) ..... 500,000원  
 한미약품(임성기) ..... 500,000원  
 일양약품(정도언) ..... 500,000원  
 삼진제약(김영배) ..... 500,000원  
 한국신약(한만우) ..... 300,000원  
 건일제약(김용욱) ..... 300,000원  
 (주)바이넥스(이백천) ..... 300,000원  
 환인제약(박호일) ..... 300,000원  
 한불제약(정승환) ..... 300,000원  
 알파항공(이양현) ..... 300,000원  
 ※ 광고비 : 한미약품 ... 1,000,000원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동문회



# 2000년 동문회 장학금 수여

동문회 활동의 큰 업적중의 하나인 모교 후배들에 대한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회장단 주관하에 모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간 2회에 걸쳐 지급되는 장학금은

전반기 총20,392,500원, 후반기 총12,245,500가 전달되어 후배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선후배 일체감 조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성별	장학금명	장학금액	수혜자명	평점	학년	성별
본 동문회 (7,000,000)	700,000	1	손현진	3.80	여	영등포동문회 (1,248,000)	624,000	김진표	3.85	2	남
	700,000	1	이지현	3.76	여		624,000	배서원	3.47	3	여
	700,000	2	전주만	4.00	남	부산동문회	500,000	박상민	2.47	4	남
	700,000	2	강영미	3.95	여						
	700,000	3	차미영	3.87	여	여자동문회 (1,000,000)	500,000	최지혜	3.50	1	여
	700,000	3	이소영	3.81	여						
	700,000	3	김정배	3.59	남	한미약품(주) (2,497,5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700,000	4	이동하	3.65	남						
	700,000	4	박은미	3.61	여	합 계 ; 12,245,500					
700,000	4	김보형	3.60	여							

편집자극

일을 시작하면 용기가 치솟지만 가다보면 「매  
너리즘」에 빠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용두사미(龍頭已未)라는  
말이 있는가 보다. 동문회지 창간호를 내보내고는 곧장 이 걱정이 앞  
서왔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에 다시 힘을 얻어 2호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고 보니 마음 가득 차오르는 기쁨이 있다. 「네 시작은 미약하  
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에 희망을 걸고...

**황 공 용**

(11회, 본보 편집인, 서초구 약사회장)

**徐**

일년중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Home Coming Day를 무사히 마쳤다. 파행  
을 거듭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와중에서도 예상을 뛰어넘어 100여명의 선후  
배 동문들이 참석하였음은 우리 동문회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준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체육대회 등 외형적인 행사 대신 시간상의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조출한 학술강연으로 대치한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영후 회장님의 직접 전화공세에 비명소리를 지르면서도 모든  
모임이 활성화되는 듯한 조짐이 회무를 맡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  
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

**明**

방송학과 교수를 하는 옛친구를 만났다. 실로 40년만에...  
그런데 마치 4일전에 만난 것처럼 격의가 없다.  
어찌하여 그렇게도 변하지 않았는지... 비교적 정상에 선 친구들이나 또한  
현재 고통받고 실의에 빠져 크게 재미를 못본 친구들이나...  
어느 누구하나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누구는 과거를 들먹이는  
것을 허물어진 담벽에 채색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과  
거속에 점차 훼손상태가 되어가는가?  
찬란한 미래는 없다. 아련한 과거만 있을 뿐?

**庸**

여유란 것이 배부른 다음의 사치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치  
의 빈틈도 없이 분노와 좌절과 허탈과 날카로워 질대로 날카로워진 신경세  
포로 가득차 있는 작금의 현실. 그 속에서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 것인지 따  
져보아야 해결책이 제시될리 무망한 일. 사물을 조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폭발하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딱 한발자욱 정도만 물러서서 볼 수 있  
는 냉정함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첫번째 매듭이 아닌가 싶다.

**洙**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어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의문의 해결점은 점점 미궁에 빠  
져들게 한다. 적어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단 며칠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  
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

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  
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 구강청정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제 효능·효과를 보고 선택하십시오!



## 케어가글

단순히 입냄새를 덮어두려면,  
꼭 케어가글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냄새는 물론,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인 세균까지 씻어내려면  
꼭 케어가글을 선택하세요.



케어가글은 의약품이므로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주는~

## 케어가글액

제품문의: (02)410-9067 / 음성정보 서비스: (02)821-0815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케어가글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의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케어가글의 10대 효과

- |                                                                                                                                                                                                                                                                                                                                        |                                                                                                                                                                                                                                                                                                                                 |
|----------------------------------------------------------------------------------------------------------------------------------------------------------------------------------------------------------------------------------------------------------------------------------------------------------------------------------------|---------------------------------------------------------------------------------------------------------------------------------------------------------------------------------------------------------------------------------------------------------------------------------------------------------------------------------|
| <p><b>1 충치 예방</b>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의 음식을 찌꺼기를 없애 충치를 예방합니다.</p> <p><b>2 치주염 예방</b> 40대 이상 성인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치주염(풍치)의 원인균을 없애줍니다.</p> <p><b>3 구내염 예방</b> 입속 점막의 상처를 통한 세균침투를 예방해 입안이 험거나 피가 나지 않습니다.</p> <p><b>4 입냄새 제거</b> 음식을 입냄새는 물론 잇몸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입냄새까지 없애줍니다.</p> <p><b>5 인두염 예방</b> 목감기(인두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침입, 강력한 살균력으로 원인균을 없애줍니다.</p> | <p><b>6 후두염 예방</b> 기침은 물론 목이 붓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후두염에 좋습니다.</p> <p><b>7 감기 예방</b> 감기의 원인이라는 호흡기의 세균을 강력한 살균력으로 없애줍니다.</p> <p><b>8 편도염 예방</b> 구개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편도염, 강력한 살균력으로 원인균을 없애줍니다.</p> <p><b>9 발치수술 후</b> 수술 부위를 깨끗이 소독 / 살균함으로써 발치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p> <p><b>10 구강수술 후</b> 구강수술 후 케어가글을 사용하면 소독 / 살균작용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p> |
|----------------------------------------------------------------------------------------------------------------------------------------------------------------------------------------------------------------------------------------------------------------------------------------------------------------------------------------|---------------------------------------------------------------------------------------------------------------------------------------------------------------------------------------------------------------------------------------------------------------------------------------------------------------------------------|



**중앙대학교교직원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